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 내일부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제로 5일 동안 열려



지난해 특별새벽기도회

2004년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성탄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주제는 요한계시록 22:20절에 있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응답이 있기전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이다. 설교는 문동학 담임목사가 준비하며, 5일동안 매번 예

배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특송순서가 있다. 주보에도 이미 공지되었지만 다시 한번 알리면, 11월 29일(월)은 당회원 일동, 11월 30일(화)은 청년부, 12월 1일(수)은 구역지도자, 12월 2일(목)은 권사회, 3일(금)은 안수집사회에서 담당한다. 올해는 교회학교 교사를 특송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구역장을 하면서 권사회나 안수집사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교회학교 교사까지 하면 5일간 3번이나 특송으로 무대를 서

야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교회학교 교사대신 청년부를 세우기로 했다. 이번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란다. 올해 다시 맞이하는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통해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에 아기예수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요람사진촬영 다음주일 한번더

1층 사진관에서 칼라사진도 받아

다음주일 12월5일에 2005년교회요람을 위한 사진촬영이 한번더 있을 예정이다. 11월14일에 마친 7주간의 사진촬영 결과, 2000여명의 성도들이 사진촬영을 마쳤으나 6000여 교우의 전체 수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수의 교우들이 아직 촬영하지 않아 다시한번 더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다.

(3면에서 계속)

12월,대림절과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달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5일 동안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있고나면 12월에는 크게 4번의 큰 연합예배와 행사가 있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에는 구역모임, 수요성경공부, 양육클래스는 모두 평소대로 모인다.

12월에 있을 큰 연합예배와 행사는 다음과 같다. 12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에 수요 저녁예배는 대예배실에서 교회학교 발표회로 열린다.

이번 교회학교 발표회는 크게 선물이라는 주제로 1막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2막은 예수님께 나를 선물로 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 각급 부서가 오케스트라, 찬양, 핸드벨, 수화찬양, 영상 CF, 뮤지컬, 어린이 난타, 워십댄스 등으로 흥겹고 밝고 희망차게 준비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벌써부터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12월 24일(금) 성탄절 이브에는 오후 7시 30분에 역시 대예배실에서 성탄칸타타가 열린다. (2면에서 계속)

어와나, 공개추첨으로 반 배정



어와나는 21일 학부모 입회하에 공개 추첨을 실시하였다. 3부예배에 어와나 불티단 부모들이 많이 참석하는 관계로 입단원서 마감시간이 1시를 조금 넘기게 되었다. 공개 추첨에 부모들이 3-40명 정도 참석하여 추첨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김현령 전도사와 전세표 장로가 추첨하고 끝까지 참관했다. 어

와나 클럽
의 어린 영
혼들이 부
를 찬송을

부른 후에 교사들과 전세표 장로 그리고 김현령 전도사가 먼저 불티 1반을 추첨했다. 추첨 당첨자는 38명이 선발되었는데 정규 인원 48명에서 38명을 뽑은 이유는 어와나 클럽 정교사의 자녀가 3명이 있고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7명이 있어서 이들 10명은 추첨을 하지 않고 우선 불티 1반에 배정시켜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대기자 12명을 선출하였고 나머지 48명은 불티 2반으로 결정되었다. 입단 신청서 제출자는 모두 108명이었고 뒤이어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불티 1반은 12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정식 오픈한다. (3층 밑알실) 불티 2반은 교사 모집을 한 후 일정 교육을 실시하여 2005년 3월 초에 오픈 예정이다. 대기조에 있는 예비 단원들은 불티 1, 2반에서 3번 이상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등에 따라서 순번에 의해 입단이 될 것이다.



전방 군부대에 보낸 따뜻한 사랑의 난로

국내선교3위원회

국내선교3위, 예배드리는 훈련 병들에게 160만원 상당의 따뜻한 난로 5대를 보냈다. 국내선교3위원회는 지난달 성백설 장로와 김종걸 집사가 전방부대를 방문하

고 부대장과 목사들을 격려하고 상호 우호관계를 가질 것을 다짐하고 돌아왔다.

5사단은 서울 중부지역에서 오는 장병들 300-

400여명씩을 5주간 훈련을 시켜 부대 배치하는 곳이며, 주일이면 450여명이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 이교회는 잘 지어진 교회였으나 1997년 대홍수로 인해 모두가 떠내려가고 황무지위에 장미꽃을 피운 아담하고 예쁜 교회였다.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연장선에 있는 장병들까지 이어져 앞으로 우리교회는 더욱더 젊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제1여선교회의 복된 모임

제1여선교회 친목 모임으로 24일(수) 오전 11시 설만한 물가에 모여 차 한 잔씩하고 점심 식사 후에 안산 진생도 교회로 향했다. 그곳에는 훌륭한 목사님과 간호학과 출신의 효자상까지 받으신 사 람이 많은 사모님께서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오갈데 없는 행려인들이 병들고 갈 곳 없이 헤맬 때 누구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목사님은 계속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들의 작은 인사에도 연신 감사를 연발하시며 하나님께 용서를 얼마나 간구하시던지 우리는 정말 그 모습에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을 적셨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갈 곳 없는 분들을 모두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은 제일먼저 목사님이 목욕을 씻겨주신다. 어제도 한분이 삼 일간 목욕 후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행려자를 돕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향기는 세상 땅 끝까지 진하게 울려 퍼져 나갈 것이다.

소년부, 달란트잔치로 추수감사절의 의미 되새겨

소년부는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날 찬양예배를 드린 후에 내년 3월부터 시작한 달란트잔치를 하게 되었다. 소년부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기록담당을 하고 출석, 기도, 순종, 사랑, 찬양, 섬김, 등반, 요절암송, QT, 전도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 본인의 달란트만큼 물건을 구입하고 '친구, 주위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본인이 나누고 싶은 물건들을 가져와 나

눔의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온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고 친구들 서로 간의 나눔의 기쁨을 느끼는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소년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광림수련원에서

중보기도사역팀 공부하며, 기도하며

대형버스를 빌려놓고 질어가는 가을에 수련회에 갈 사역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왔다.

11월 18일 36명이 참석하여 9시 30분에 정명환 목사와 일행은 버스를 타고 광림수련원으로 출발하였다. 10시 45분 도착, 그룹 미팅방으로 안내되어 '아침의 축복' 찬양을 하며 기도회 문을 열었다.

맨 처음 영적인 충만함을 다지며 하나님께 이 모임을 지켜주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발견하도록 기도하고 또 팀별로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레위팀, 비전팀, 라파팀, 미션팀, 119팀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그중에는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 기도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고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올려놓고 기도하던 중 치유가 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점심을 먹고 기도의 동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언덕으로 이어진 길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에 따른 마음의 풍요로움도 느끼면서 만들어 놓은 갯세마네동산을 지나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린아이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등의 작품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었고 부활의 동산에 도착하였을 때 찬송 42장,

135장을 부르며 묵상기도로 내려왔다.

2부 순서로 정희성 목사가 진행하는 중보기도사역에 관한 공부를 했다. 중보기도사역의 비전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은 기도생활을 위한 모임이다. 이 기도모임은 또 중보기도사역팀을 위해서 모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사역을 위한 모임이기도 하다.

중보기도를 체계적으로 조직해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팀은 좀 더 소규모 기도그룹이 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같은 비전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나누는 소그룹 중보기도사역팀이 정착과 생활화되고, 특화된 소그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보기도실에서는 비밀준수가 특권에 따르는 의무이다.

1.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사:12:2~3)
2. 물댄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음 샘(사:58:11~12)
3.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배에서 샘물의 강이 흘러나오게(요:3:37~38)
4.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창 21:14~19)
5.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요 4:6~15)

6.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흘러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출 17:1~6)

6개의 성경구절로 사역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룹으로 모여 은혜 받은 구절을 나누며 기도하였다.

주님의교회를 위한 간절한 통성기도가 이어지고 교회목사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1면에 이어서)

12월, 대림절과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달

이번 음악회는 2부 시온찬양대가 준비하고 있다. 12월 25일(토) 성탄절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연합예배로 교회안의 모든 부속실을 동원하여 단 한 번의 예배로 드려진다. 이번에도 교회학교에서 준비하는 조그마한 성탄선물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31일(금) 올해의 마지막 날은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예배로 단 한번의 예배를 드린다.

송구영신의 예배를 통해 2004년을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보내고 기도와 희망 속에서 밝아오는 2005년 새해를 예배 가운데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유년부친구들의 추수감사주일

유년부는 14일 둘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주일로 정하고 감사를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시제를 주고 6행시 짓기를 했는데 유년부 아이들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글 속에서 충분히 표현되었고, 너무나 훌륭한 시들이 많이 나와서 1, 2, 3등 시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컸을 정도였다.

그리고 21일 추수감사주일에는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먼저 찬양과 율동으로 다함께 하나님께 나아갔고 교사들의 연극으로 전도사의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했다.

"감사항아리 소원항아리"라는 제목의 연극이었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다니러 온 두 천사와 세

어린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감사 할 줄 아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봉헌 시간에는 농부 아저씨 대표, 부모 대표, 선생님 대표, 아이 대표가 각각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특히 아이 대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멋진 피아노 연주를 올려드리기도 했다.

2부 활동으로는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봉헌하였던 과일을 다시 나누어 먹으며 선생님과 친구들과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풍선장식으로 사과 나무를 멋지게 만들고, 예쁜 집 그림으로 벽을 장식한 홍보부의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추수 감사절 예배를 더욱 기쁘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들 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자자히 남는 날이 되었다.

오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니이다.

나눔의 물품 17박스

안양 군포공단 한무리교회와 한무리 나눔의 집에 보내

한무리, 감사의 편지 보내와

복지선교부 주관으로 지난 10월 24일 주일 나눔의 물품을 모은 결과 나눔의 물품 총17박스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특별히 안양 군포공단 한무리 교회와 한무리 나눔의 집에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바자회 장터마당과 나눔 마당에 이 물품들을 보내드렸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감사의 답 글이 왔다.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한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인사와 함께 문안드립니다. 도움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올해로 열아홉 번째 열린 마을 바자회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어느 해 못지않은 성과도 있었고 무엇보다 금년에는 여러 단체들의 도움으로 보다 풍성한 나눔 마당을 펼칠 수 있어서 가슴 따뜻하고 행복했던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해마다 한 번 늦가을이면 이곳 안양군포공단 언저리 맑은내 마을에서 열리는 동네잔치로

서 단순한 수익사업을 떠나 저희들의 작은 나눔을 통해 척박한 공단마을에 작은 온기가 스미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님의 교회에서 모아주신 재활용 옷들은 저희 바자회의 재활용 옷방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 동네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주민들의 겨울의출복으로 혹은 작업복으로, 그들이 두고 떠난 고향의 친지들에게 보낼 선물로 팔려나갔습니다.

어쩌면 별 생각 없이 버려질 수 있었던 그 옷가지들을 통해 선물 받은 이들에게는 사랑을 확인하는 기쁨이 될 테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겨울 찬바람을 막아 줄 따뜻함이 되어주겠지요. 그리고 저희 신나는 밥집에서 함께 밥을 나누고 있는 70여명의 아이들과 20여분의 어르신들께는 올 겨울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이 되어줄 겁니다.

올해 저희들의 바자회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집사님과 옷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 한무리 나눔의 집에서 김영숙 드림 -

(1면에 이어서)

요람사진촬영 다음주일 한번더

1층 사진관에서 칼라사진도 받아

1층 설만한 물가 옆 사진관에서 주일 오전8:30부터 오후1:30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교회요람제작의 실무를 맡고 있는 홍보출판부장 김홍용 집사는 이번 한번 더 사진촬영을 해서 가능한 많은 교우들의 사진이 들어가도록 하려 한다고 말하며, 교우들의 적극적인 사진촬영을 당부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7주동안의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주일에도 사진촬영을 할 수 없는 교우들은 가족들을 통하여 칼라사진을 제출하면 되는데, 사진뒷면에 이름,휴대폰,구역 등을 적어서 1층 사진찍는 곳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기회에도 사진을 찍거나 칼라사진을 제출하지 못한 교우의 경우는 기존의 흑백사진이 들어가게 된다.

2005년도 교회요람에는 칼라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관계로 편집상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회요람은 다양한 연령대의 교우들이 사용하게 되므로 가능한 단순히 편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칼라사진 교우, 흑백사진 교우, 사진없는 교우 등이 혼재하게 되어 교적부분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염려가 있다. 홍보출판부에서는 가능한 단순히 편집하여 교우들이 보기에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편집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칼라사진으로 변경되는 첫해라는 점을 교우들이 널리 양해하기를 바라며, 사진포함된 교적의 게시를 12월중에 계획하며, 1월중 인쇄하여 구역장을 통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주님의교회 교우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 도서반납은 기간내에 꼭!
- 운동장에 주일오후 주차금지!
- 국수드신후엔 꼭 의자정돈을!

- 도서반납은 기간내에 꼭!

도서부에서는 빌려간 책들이 규정된 기일 안에 반납되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책들을 여러 교우들이 돌려가며 보기 위해서는 책을 빌려간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규정된 기일 안에 책을 반납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책꽂이가 많이 비어있는 실정이다. 교회예산으로 구입한 책을 빌려가 반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될지 한번쯤 자문해 볼 일이다.

사회 도서관처럼 반납을 독촉하거나 분실과 미반납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율로 반납 기일을 잘 지켜줄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린다. 전체 도서실 회원 500명중 1달 이상 장기 연체자가 현재 150명 이상이다.

- 운동장주차, 주일오후 1시 30분이후엔 안되요!

주지하는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운동장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이 열린다.

실시한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 원할

한 축구교실운영을 위해 1시 30분 이후에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그렇게도 수없이 안내했고 가끔 실내방송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도교사와 어린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어린이 사랑" 이런 큰 구호보다는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부 강한 여론은 일정기간 홍보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책 미반납이나 차량을 1시 30분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교우들의 명단을 교육차원에서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여러 다른 교우들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다.

- 국수반찬은 4인 기준, 드신후엔 꼭 의자정돈을!

주방부에서는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여

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먼저 국수를 먹고 나서 그릇을 반납할 때 그릇 안에 휴지를 함께 버리는 교우들이 있다. 그러면 봉사 부원들이 잔반을 치우다가 행동을 멈추고 휴지를 그릇에서 건져 치워야하는 수고가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김치와 단무지 반찬은 원래 테이블 당(4인 기준) 분배가 된 것인데 반찬을 자신 혼자 드시는 교우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는 앉았던 의자는 다시 테이블 밑에 넣어주면 나중에 주방 봉사 부원들이 일일이 의자를 정돈하는 수고로움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행동으로 전달되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유소년축구클럽

미사리 경기장에서 보낸 하루

유소년축구클럽은 춥지 않은, 운동하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날씨였던 11월 21일 중등부가 선발대로 먼저 출발을 해서 미사리에 도착했다.

넓은 구장은 그동안 쌓아 두었던 실력들을 맘껏 발휘해 볼 수 있게 될거라는 것을 아이들의 설레이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이어 도착한 초등부는 초

원위에 뛰노는 망아지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쩔 줄 몰라하며 조별 모임을 가졌다. 각 조는 교사와 이용수 부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고 조별 게임과 함께 조별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식사 후 축구교사와 함께 각자들의 기량을 발휘하며 게임을 하고 조별 시험도 했다. 김현령 전도사가 함께 참석해 중등부와 학부모 스태프들과 함께 게임시간을 가졌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고 작은 사고 없이 즐거운 시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교회소식

■ 교우 동정

7교구 1구역의 최진옥 집사가 지난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서초동 국제전 자센터 문화관(12층)에서 사단법인 한국꽃꽂이 협회후원으로 꽃 예술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최진옥 집사(문창업 집사)는 한국꽃꽂이 협회 이사이며 미국에서 인정하는 꽃 디자이너 자격증(The American Institute of Floral Designers Certificate of Accreditation)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가향꽃예술중앙회 연구실을 운영하며 서울여대 사회교육원 꽃 예술 지도자 과정을 교수하고 있다. 최집사는 주님의교회 창립 때부터 꽃꽂이 봉사를 하였다.

희망의 트랙

주님의교회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2005년도 주님의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선생님을 찾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진실된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은 자원봉사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세요

자격: 세례교인으로 교사대학을 수료했거나 2년 안에 수료할 사람

모집부서: 영아부(0-24개월) 주일 3부예배시
유아부(24-48개월) 주일 3부예배시
유치부(48개월-취학전) 주일 3부예배시
썸트네(취학전 유아) 주일 2부예배시
유년부(초등학교 1-2학년) 주일 3부예배시
초등부(초등학교 3-4학년) 주일 3부예배시
소년부(초등학교 5-6학년) 주일 3부예배시
레인보우(초등학교 전학년) 주일 2부예배시
중등부(중학교 전학년) 주일 2부예배시
고등부(고등학교 전학년) 주일 2부예배시

유소년축구클럽(초등학교 - 중학교) 주일 오전 11:30, 오후 1:30
AWANA(2005년 현재 7-9세) 토요일 오후 3시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지난 주일은 11월 셋째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다.

담임목사는 시편 100:1-5절을 본문으로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담임목사는 말씀을 통해 부르라! 섬기라! 들어가라! 인정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라는 동사들을 통해 감사의 부름과 성전 앞에서의 감사의 생활과 성전 안에서의 감사의 예배에 관해 설교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봉사부원들의 섬김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모든 부서와 청년들에게까지 떡을 함께 나눔으로 추수감사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각급 교회학교에서는 특별한 예배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해 추수감

사의 기쁨을 부서 아이들에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주일이였다.



사진 설명: 추수감사 떡 나누는 장면



사진 설명: 유치부 추수감사주일 예배 장면

고3수련회

지난 1년간 수학능력평가라는 목표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고3 청소년들이 오늘부터 1박 2일의 짧은 수련회를 떠난다. 속초 바다를 거쳐 강원도 인제의 목조 펜션에서 함께 식사와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



사진 설명: 2003년 고3수련회 경계로 수문

참가한 고3들과 선생님들은 도심 속 콘크리트 건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속에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게 될 것이다.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크게 한 번 웃어 보고, 서로를 격려하게 될 뿐 아니라 미성년의 신분을 벗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실히 돌아보는 예배의 시간도 주어지게 된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cafe.daum.net / PCLBOOKS](http://cafe.daum.net/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썸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